



아이들의 예술난장 '키즈존'

체험·어린이극 공연·키즈 마켓 어린이 눈높이 맞추고 인기몰이 '합동놀이터' '골목놀이' 예정



지난 23일 열린 대인예술시장에서 캐리커처 그리기를 진행한 국하운양.

"인형 사세요. 작은 인형 하나에 1000원이에요."

지난 23일 대인시장. 옛된 박하람(9)양의 목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하람양은 이날 작은 가판을 차렸다. 집에 두었던 인형, 소꿉놀이 용품 등을 들고 나온 하람양은 인형에 대한 설명을 하며 열심히 물건을 팔았다. 하람양은 "내가 가지고 나온 물건을 판매하는 게 재미있어서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인예술시장 별장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 '키즈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체험, 어린이극 공연, 키즈 마켓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키즈존'은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다 올해부터 정규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다. 미술을 주제로 한 '마법의 극장', 이글루 만들기 등을 진행한 '겨울왕국', 다육이 심기 등이 어우러진 '어린이 꽃이 피었습니다' 등 겨울놀이, 크리스마스, 꽃, 동화, 통일 등 다채로운 소재로 프로그램을 기획,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어린이 베품

시장 '키즈마켓'에는 모두 13개팀이 참여해 완구, 의류, 도서 등 다채로운 물품을 판매했다. '하운이네' 간판을 건 캐리커처 가게는 인기만점이었다. 국하운(유안초 4년)양이 색연필로 그려주는 캐리커처는 단돈 500원. 이날 하운양의 '멋진' 그림을 받아든 20대 커플은 '꼬마작가'와 기념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운양은 "손님들의 얼굴의 특징을 잡아서 그림을 그렸다"며 "잘 그렸는지 모르겠다"고 웃었다.

키즈존은 30일 '합동놀이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파라슈트 놀이, 고무줄로 컵쌓기, 장애를 넘어 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인형극 '또또와 뿌뿌'도 상연한다. 7월21일에는 '골목놀이'를 주제로 곤충 종이접기, 딱지 치기 체험 등이 펼쳐지며 어린이 댄스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하반기에는 키즈마켓 등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을 포함, 다채로운 기획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명작가 작품 담은 나만의 에코백

대인야시장 '예술한마당 術 파는 장터' 30일 오후 6시

에코백 경매행사 ... '더 드림 싱어즈' 유별난 예술극장도

'세상에 하나뿐인 에코백의 주인이 되세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6월 마지막 주 대인야시장(30일 오후 6시-11시)에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예술한마당 術 파는 장터'(오후 8시-10시·월차차장)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상호·한희원·성유진·김일근·Lisa May Casaus(미국)·Lu Wen(중국) 등 56명의 작가들은 지난 23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에코백을 제작, 판매행사를 가졌다.

'예술한마당 術 파는 장터'에서는 김해성·김병택·박인선 작가 등 21명의 작가가 제작한 에코백 판매 경매행사를 진행한다. 작가의 개성이

담긴 에코백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전원숙·신양호·성유진 작가가 에코백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행사도 진행하며 관객 정음주씨는 '격정말야요 그대', '지리산' 등 다양한 노래를 선사한다.

유별난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더 드림 싱어즈'(오후 7시-7시30분)의 공연도 볼만하다. 소프라노 김혜민·이재연, 테너 여혁인·김태연, 베이스 박광석 등이 출연해 '리테츠키 행진곡', '바람의 빛깔', '나성에 가면'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한평 갤러리에서는 김병균·박문수·성혜림·김지연·이경옥·조혜영 작가가 참여하는



30일 예술시장 경매에서 판매 될 에코백.

'살이 된 풍속'전이 열리고 있다. 문의 062-233-14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라틴댄스에 빠진 춘향이'

내일 금남로 프린지페스티벌

월드컵 기간과 장마철이 겹쳐 야외 활동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즘이다. 이번 주말에는 도심에서 펼쳐지는 문화현장을 찾아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은 어떨까.

30일 오후 6시부터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에는 특히 금남로 거리에 '라틴댄스에 빠진 춘향이'가 나타나 흥미를 더해줄 전망이다.

'춘향이 라틴댄스에 빠지다'는 성춘향과 이몽룡이 판소리와 라틴댄스를 넘나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연이다. 관객과 소통하는 고전 로망스 공연으로 국내 최초 '테마가 있는 댄스 공연' 장르를 개척한 '히어로댄스 스쿨'과 광주

프린지페스티벌 연출팀이 협업으로 완성했다.

이밖에 '매직유랑단'은 풍선을 입은 슈퍼맨이 공중 사다리 퍼포먼스를 펼치는 '별론 서커스'를 보여준다. '르포랩'은 첼로를 들고 거리로 나와 '첼로 버스킹'을 선보이고 유쾌한 댄스 타임을 벌이는 '조이크루'는 "몸치 완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시민들과 함께 '조이와 함께 놀아보겠쇼'를 펼친다.

이번 주에는 오월창작가요제도 함께한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 앞 무대에서 오월창작가요제 수상팀 '우물안 개구리'와 '삼촌밴드 이진우'의 공연이 열린다. 우천 시 취소될 수 있다. 문의 062-223-04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화가 이진상 9년만에 첫 '외출'

7월 3일까지 예술의 거리 갤러리 봄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진상 작가는 오랫동안 붓을 놓았었다.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면서다. 9년의 공백을 지나 그녀는 다시 이젤 앞에 앉았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두 딸들이 그림 그리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는 걸 보고 툴툴이 붓을 들었고 지난해 남편인 조각가 위재환 작가와 2인전을 열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얻었다. 그리고 올해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봄에서 첫번째 개인전(7월3일까지)을 연다.

'모·몽'(母·夢)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동물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작가는 원숭이, 닭, 소 등 12간지를 포함해 다양한 동물을 소재로 작업했다. 가족의 띠를 그린 작품을 집에 걸어두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이 출발이었다. 근사한 정장을 차려입은 닭은 파이프를 물었다. 푸른 모자를 쓴 돼지는 핸드폰을 들었다. 원숭이는 테이크 아웃 커피를 앞두고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졌다. 의인화된 동물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그밖에 선글라스를 쓴 고양이, 화려한 문양의 양복을 차려입고 나비 넥타이를 맨 불독, 높이 솟



'10-酉'

은 뿔이 인상적인 사슴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한다. 이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 미술학과 미술이론 과정을 수료했다. 010-9078-18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진호 시립미술관장 사임



대를 성과로 꼽았다. 또 청년 작가들을 비롯해 지역 작가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기 위한 레지던시 사업 확장과 인문학 강좌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의미있는 기획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술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이라며 앞으로 예산 확보와 함께 교육과 아카이빙 전문가가 배치돼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관장은 화순 작업실에서 작품활동을 이어가며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인 초대전도 열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